<h1>나 혼자만 레벨업-52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d120fd3e8bf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52화</p>  
<p>이게 웬 날벼락이야.</p>  
<p>잘 나가다가 어째서 '암살자'가 아니라 '네크로맨서'가 튀어나오는 거지?</p>  
<p>진우는 멍하니 메시지를 응시했다.</p>  
<p>눈을 비벼 보기도 했으나 달라지는 건 없었다.</p>  
<p>[당신의 직업은 '네크로맨서'입니다.]</p>  
<p>메시지는 그대로 떠 있었다.</p>  
<p>처음엔 믿기지 않았고, 다음엔 화가 치솟았다.</p>  
<p>'지능 스탯은 건드린 적도 없는데 왜!'</p>  
<p>수많은 마법계열 헌터들 중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런 희귀한 직업이 걸린단 말인가.</p>  
<p>진우는 E급으로 각성할 때부터 전투계열이었다.</p>  
<p>무기는 처음 강철검을 제외하면 단검만 썼고, 얻는 스킬은 족족 암살자들의 것과 비슷했다.</p>  
<p>그래서 설마 다른 계열의 직업이 나올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었다.</p>  
<p>그것도 마법계열, 그것도 하필 네크로맨서라니.</p>  
<p>비록 게임 내 직업 설정을 기반으로 한 지식이지만, 네크로맨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대충 알고 있었다.</p>  
<p>음침한 마법사와 그 뒤를 따르는 언데드 군단.</p>  
<p>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신과는 연관성을 찾기가 힘들었다.</p>  
<p>눈살을 찌푸리던 진우가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다.</p>  
<p>'...일단은 진정하자.'</p>  
<p>머리가 복잡하더라도 대처는 차분하게.</p>  
<p>침착함은 진우의 무기였다.</p>  
<p>잠깐 흥분을 가라앉히고 나니 곧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었다.</p>  
<p>'그런데 이거 어째...'</p>  
<p>부정, 다음엔 분노.</p>  
<p>지금 자신의 상태가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들에게서 볼 수 있다는 '죽음의 5단계' 반응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다.</p>  
<p>'분노... 그다음이 협상이었던가. 타협이었던가?'</p>  
<p>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그다지 타협할 거리가 없었다.</p>  
<p>굳이 네크로맨서라는 직업의 장점을 꼽아 보자면... 시스템이 말한 대로 자신만의 군대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정도?</p>  
<p>'그 군대라는 게 해골과 시체로 만들어진 병사들이라서 문제지.'</p>  
<p>그런 걸 데리고 다녔다간 세상이 뒤집힐 거다.</p>  
<p>그렇지 않아도 헌터들은 선망의 대상이면서 공포의 대상이기도 한데, 대놓고 '망자들의 군대'를 끌고 다니는 헌터가 되라니.</p>  
<p>어울리느냐, 아니냐는 둘째치고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직업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?]</p>  
<p>시스템이 대답을 요구했다.</p>  
<p>그나마 다행이었다.</p>  
<p>'선택권이 있어서...'</p>  
<p>진우는 한숨 돌렸다.</p>  
<p>직업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건 다른 기회가 있다는 뜻이리라.</p>  
<p>아직 전직 기회가 남아 있다면 이렇게 고민할 이유가 없었다.</p>  
<p>진우는 흔쾌히(?) 제안을 거절했다.</p>  
<p>"아니."</p>  
<p>그러자 메시지가 다시 물어왔다.</p>  
<p>[네크로맨서는 '히든 클래스'입니다. 그래도 거절하시겠습니까?]</p>  
<p>같은 내용임에도 두 번째 질문에는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다.</p>  
<p>답하기가 망설여졌다.</p>  
<p>'히든... 클래스?'</p>  
<p>게임에서나 나올 법한 단어였지만 실은 현실에서도 희귀한 능력을 가진 헌터들이 있긴 했다.</p>  
<p>실드를 만들 수 있는 헌터라든가.</p>  
<p>버프를 걸 수 있는 헌터라든가.</p>  
<p>'백호 길드의 마스터 백윤호는 마수로 변신이 가능하다는 소문도 있고.'</p>  
<p>그런 특이한 힘을 지닌 헌터들은 모두 대형 길드에 영입되어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.</p>  
<p>'히든 클래스라는 건 그런 헌터들이 가진 독특한 능력을 말하는 건가?'</p>  
<p>만약 그렇다면...</p>  
<p>'이건 기회일지도 모른다.'</p>  
<p>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다.</p>  
<p>시스템은 말했었다.</p>  
<p>'내가 강한 힘을 갈구하기 때문에 네크로맨서란 직업을 추구한다고.'</p>  
<p>즉 다시 말해서 네크로맨서는 그만큼 강력한 직업이라는 거다.</p>  
<p>대부분의 희귀 능력 각성자들이 '보조계열'에 속한다는 걸 떠올리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었다.</p>  
<p>싸울 수 있는 특수 능력자라.</p>  
<p>조금씩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했다.</p>  
<p>'네크로맨서라는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다면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을 텐데.'</p>  
<p>그런데 그게 어디 쉽나?</p>  
<p>모든 일이 그렇게 형편에 맞게 돌아갈 리도 없고, 그런 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소문도 듣지 못했다.</p>  
<p>애초에 자신의 군대를 통솔하여 싸우는 마법사 따위가 존재할 리가.</p>  
<p>거기까지 생각이 미쳤을 때.</p>  
<p>'아...'</p>  
<p>진우는 주위에 널브러져 있는 기사들의 잔해를 빙 둘러보았다.</p>  
<p>'그 마법사들!'</p>  
<p>전직 퀘스트에 등장했던 마법사들이 네크로맨서와 비슷한 능력을 썼다고 말할 수 있었다.</p>  
<p>여기에 있는 기사들은 그들의 군대였던 것이다.</p>  
<p>'확실히.'</p>  
<p>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덤벼드는 기사들은 상대하기 까다로웠다.</p>  
<p>만약 끝까지 대처법을 알아내지 못했다거나, 마법사들의 전투 능력이 떨어지지 않았다면...</p>  
<p>'여기 누워 있는 건 이 쇳덩이들이 아니라 나였을 수도 있다.'</p>  
<p>기사들을 둘러보던 진우가 고개를 들어 올렸다.</p>  
<p>진우의 눈에 이채가 흘렀다.</p>  
<p>'나는 전투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.'</p>  
<p>그 마법사들과 자신은 다르다는 이야기.</p>  
<p>뛰어난 개인 전투력을 갖춘 마법사가 자신만의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게 된다?</p>  
<p>적의 입장에선 그야말로 악몽과 같은 일이지 않을까?</p>  
<p>'어쩌면...'</p>  
<p>생각만 해 왔던 일.</p>  
<p>B급 이상의 상급 던전을 혼자서 클리어하는 일이 가능해질지도 모른다.</p>  
<p>진우는 침을 꼴깍 삼켰다.</p>  
<p>만약 네크로맨서가 된 후에도 지금처럼 계속해서 능력치를 올릴 수 있다면 당연히 휘하에 있는 군대의 힘도 갈수록 막강해지리라.</p>  
<p>그 시너지 효과는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.</p>  
<p>'나 혼자만의 레벨업이 아니다.'</p>  
<p>내 군단 또한 같이 성장하는 거다.</p>  
<p>'설마...?'</p>  
<p>순간 소름이 돋았다.</p>  
<p>진우가 고개를 들어 허공의 메시지를 바라보았다.</p>  
<p>메시지는 조용히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다.</p>  
<p>[네크로맨서는 '히든 클래스'입니다. 그래도 거절하시겠습니까?]</p>  
<p>평소와 달리 재촉조차 하지 않고서.</p>  
<p>진우는 속으로 물었다.</p>  
<p>'네가 원하는 게 이거였나?'</p>  
<p>물론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.</p>  
<p>고민 끝에, 진우는 결단을 내렸다.</p>  
<p>강한 힘을 주겠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.</p>  
<p>선택에 망설임은 없었다.</p>  
<p>[직업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?]</p>  
<p>"그래."</p>  
<p>시스템은 기다렸다는 듯 다음 메시지를 띄웠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직업이 결정되었습니다.]</p>  
<p>[획득한 승급 포인트에 따라 상위 클래스로 전직할 기회가 주어집니다.]</p>  
<p>[계산을 시작합니다.]</p>  
<p>[승급 포인트 계산 중...]</p>  
<p>계산이 진행되는 동안 진우는 오른손에 묶여 있는 붕대를 풀었다.</p>  
<p>단검을 어찌나 세게 쥐고 있었는지 손바닥이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다.</p>  
<p>"물집 생기겠네."</p>  
<p>가볍게 혀끝을 끌끌 찼다.</p>  
<p>힐링 포션 한 방울이면 해결될 상처인데, 회복이 안 된다는 게 여러모로 불편했다.</p>  
<p>붕대를 다 벗겨 내고 쥐고 있던 '나이트 킬러'를 창고에 막 넣으려는 순간, 돌연 기계음이 울렸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진우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.</p>  
<p>[예상 한계 시간을 초과했습니다!]</p>  
<p>[가산점이 부여됩니다.]</p>  
<p>가산점이라.</p>  
<p>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었다.</p>  
<p>'예상 시간이 얼마였는지는 몰라도 내가 좀 오래 버티기는 했지.'</p>  
<p>그렇게 흡족한 기분으로 웃고 있는데, 갑자기 메시지들이 눈앞을 뒤덮였다.</p>  
<p>[즉시 귀환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!]</p>  
<p>[가산점이 부여됩니다.]</p>  
<p>[잔여 체력이 50%를 넘습니다!]</p>  
<p>[가산점이 부여됩니다.]</p>  
<p>[모든 적들을 처치했습니다!]</p>  
<p>[가산점이 부여됩니다.]</p>  
<p>[승급 포인트 한계가 업적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.]</p>  
<p>[계약에 따라 특별한 보상이 주어집니다.]</p>  
<p>띠링, 띠링, 띠링.</p>  
<p>'뭐야?'</p>  
<p>아주 귀가 따가울 정도였지만 이미 진우의 신경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.</p>  
<p>소리는 들리지도 않았다.</p>  
<p>'특별한 보상?'</p>  
<p>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.</p>  
<p>보상.</p>  
<p>그것도 '특별한'.</p>  
<p>진우는 '나이트 킬러'를 창고로 보내려던 손을 멈추고 메시지창에 주목했다.</p>  
<p>시선이 못 박힌 듯 고정됐다.</p>  
<p>이윽고 메시지가 이어졌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'네크로맨서'에서 '그림자 군주'로 전직합니다.]</p>  
<p>[직업 전용 스킬을 배웠습니다.]</p>  
<p>[보너스 스탯을 획득했습니다.]</p>  
<p>[칭호 '역경을 이겨 낸 자'를 획득했습니다.]</p>  
<p>'그림자 군주?'</p>  
<p>생소한 소리에 급하게 상태창을 불러 왔다.</p>  
<p>[이름: 성진우]</p>  
<p>[레벨: 51]</p>  
<p>[직업: 그림자 군주]</p>  
<p>과연 직업명에 새로운 단어가 추가 되어 있었다.</p>  
<p>'네크로맨서가 아니라?'</p>  
<p>분명 승급 포인트에 따라 상위 클래스로 전직이 가능하다고 했었다.</p>  
<p>또한 승급 포인트 합계가 업적 한계치를 넘었다고도 했었다.</p>  
<p>그렇게 나온 결과가 '그림자 군주' 였다.</p>  
<p>"그럼 이게..."</p>  
<p>시스템이 말한 특별한 보상?</p>  
<p>그러나 진우는 다음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.</p>  
<p>'...?'</p>  
<p>눈앞에서 말로 설명하기 힘든,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.</p>  
<p>홀로그램 메시지 뒤.</p>  
<p>잡동사니처럼 널브러져 있는 기사들에게서 검은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이다.</p>  
<p>전직 전까진 없었던 현상이었다.</p>  
<p>방금 전까지 주인 잃은 고철들에 불과한 놈들이었다.</p>  
<p>그런데.</p>  
<p>진우는 상태창을 접고서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.</p>  
<p>한두 개가 아니었다.</p>  
<p>검은 연기는 기사들 전원에게서 올라오고 있었다.</p>  
<p>[그림자 추출이 가능한 대상입니다.]</p>  
<p>[그림자 추출이 가능한 대상입니다.]</p>  
<p>[그림자 추출이 가능한 대상입니다.]</p>  
<p>그리고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대상을 쳐다볼 때는 어김없이 '추출이 가능하다'는 의미를 알기 힘든 글귀가 떠올랐다.</p>  
<p>'그림자 추출?'</p>  
<p>어째서인지는 모르겠다.</p>  
<p>진우에게는 스멀대는 검은 연기들이 마치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처럼 보였다.</p>  
<p>구해 달라고 자신에게 손을 뻗는 것 같이 느껴졌다.</p>  
<p>비명이 들린다...고 하면 이상한 일일까?</p>  
<p>'하지만.'</p>  
<p>확신이 들었다.</p>  
<p>그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다는 확신이.</p>  
<p>'그림자 추출.'</p>  
<p>[그림자 추출 스킬의 명렁어를 지정하십시오.]</p>  
<p>'스킬에 명령어를 따로 지정해야 하는 건가?'</p>  
<p>잠깐 고민하던 진우는 본능적으로 한마디를 내뱉었다.</p>  
<p>"일어나라."</p>  
<p>그러자.</p>  
<p>우아아아아-</p>  
<p>어디선가 묵직한 신음 소리들이 들려옴과 동시에 기사들의 그림자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.</p>  
<p>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.</p>  
<p>진우는 다시 주위를 돌아보았다.</p>  
<p>자신을 둘러싼 그림자들이 전부 움직이고 있었다.</p>  
<p>이윽고 그림자에서 검은 손이 뻗어 나왔다.</p>  
<p>손은 땅을 강하게 짚더니 스스로를 끌어올렸다.</p>  
<p>'맙소사!'</p>  
<p>진우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그건 사람이었다.</p>  
<p>사람의 행상을 한 병사들!</p>  
<p>전신을 칠흑의 갑주로 무장한 병사들이 하나둘 그림자에서 기어 올라왔다.</p>  
<p>'이게 스킬이라고?'</p>  
<p>진우가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병사들의 숫자가 수십에 달한 뒤였다.</p>  
<p>[그림자 추출에 성공했습니다.]</p>  
<p>수십의 병사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다.</p>  
<p>'이게 대체...'</p>  
<p>진우는 그중 가장 가까운 병사에게 다가갔다.</p>  
<p>우선 촉감.</p>  
<p>손을 대 보니 금속 재질이 느껴졌다.</p>  
<p>보기만 갑옷 같은 게 아니었다.</p>  
<p>진짜 흑색 갑옷을 입고, 무기를 찬 병사들이었다.</p>  
<p>'언뜻 보면 사람 같지만.'</p>  
<p>사람 또한 아니었다.</p>  
<p>생명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다. 숨소리도 들리지 않고, 심장 박동도 느낄 수 없었다.</p>  
<p>게다가.</p>  
<p>"..."</p>  
<p>진우는 신음을 삼켰다.</p>  
<p>눈구멍을 통해 투구 안을 슬쩍 들여다보니 안은 어둠 그 자체였다. 빨려들어갈 것 같은 느낌에 진우는 천천히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.</p>  
<p>'그림자에서 이런 걸 만들어 낸다고?'</p>  
<p>당장 스킬창을 확인했다.</p>  
<p>시스템이 알려준 대로 새로운 직업 전용 스킬들이 나열되어 있었다.</p>  
<p>[직업 전용 스킬]</p>  
<p>액티브 스킬: 그림자 추출 Lv.1, 그림자 저장 Lv.1</p>  
<p>그중 앞선 스킬을 먼저 확인해 보았다.</p>  
<p>[스킬: 그림자 추출 Lv.1]</p>  
<p>직업 전용 스킬.</p>  
<p>필요 마나 없음.</p>  
<p>생명이 다한 신체에서 마나를 뽑아내어 그림자 병사로 만듭니다. 대상이 가진 능력치, 대상의 사망 경과 시간에 비례하여 추출 실패 확률이 올라갑니다.</p>  
<p>추출 가능한 그림자 수: 30 / 30</p>  
<p>스킬 설명을 읽고서야 검은 병사들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.</p>  
<p>'...언데들이었군.'</p>  
<p>그림자 병사.</p>  
<p>죽은 이의 그림자에서 뽑아낸 괴물들이었다.</p>  
<p>진우는 침을 꼴깍 삼켰다.</p>  
<p>'이 녀석들이 진짜 내 병사들이라면...'</p>  
<p>진우가 손을 오른쪽으로 뻗었다.</p>  
<p>그러자 병사들이 일제히 오른쪽으로 몸을 틀었다.</p>  
<p>손끝을 천천히 정면으로 옮겼다.</p>  
<p>병사들 또한 손의 움직임을 따라 천천히 정면을 향했다.</p>  
<p>그 중심에 진우가 서 있었다.</p>  
<p>진우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손을 아래쪽으로 내렸다.</p>  
<p>그와 동시에.</p>  
<p>척.</p>  
<p>척.</p>  
<p>척.</p>  
<p>병사들 전원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었다.</p>  
<p>모든 게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었다.</p>  
<p>"하..."</p>  
<p>가볍게 감탄을 터트린 진우가 슬며시 입꼬리를 올렸다.</p>  
<p>'이거 멋진데?'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